



건설

건설



김기룡

02 3770 3521

kiryong.kim@yuantakorea.com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GS건설	BUY (M)	57,000 (M)
현대건설	BUY (M)	62,000 (M)
DL 이앤씨	BUY (M)	180,000 (M)
대우건설	BUY (M)	8,300 (M)
삼성엔지니어링	BUY (M)	31,000 (M)

대선 이후 업종 Risk 점검, 결론은 '비중확대'

대선 모멘텀 부각, 주가 강세 지속

3월 9일 대선 이후에도 주요 건설/건자재 업종의 주가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커버리지 대형 5개사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대선 직후 +6.0%p로 동기간 KOSPI 지수 대비 4.6%p 아웃퍼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내 250만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교통 여건 개선, 세제 완화 등의 변화와 건설/건자재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언론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달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안 발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종 Risk 요인 점검, 결론은 '비중확대'

이와는 반대로 건설업종의 Risk 요인으로는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 강화 우려 2)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훼손 우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상존하고 있다.

1) 지난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외)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사고는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법 시행에 대해 각 사는 유예기간 중 인력 교육, 안전관리 강화 등의 준비로 시행 전후 대규모 비용 증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 경영 의지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입법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2)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계약/발주처별 에스컬레이션 조항 적용과 V/O 등을 통한 원가 보상, 자재 계약방식별 원가 절감, 분양가 인상 효과 등은 원가 방어에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실제, 2021년 고점을 기록한 철근 가격과는 달리 주요 건설사의 주택/건축 원가율은 오히려 유지 또는 개선되는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기존 추정치를 기준으로 총 매출원가의 1% 상승을 가정하더라도 전년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6%(DL이앤씨 제외 시 12%)을 기록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이익 개선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추정한다.

3) 역대 해외 수주 실적에서 러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 수준으로 높지 않다. 최근, DL이앤씨, 삼성엔지니어링이 수주한 러시아 플랜트 현장은 초기 설계 단계로 단기적으로 매출 기여도는 높지 않다. 현 사태의 장기화 및 금융 제재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정적이나, 단기적으로 각 사의 실적과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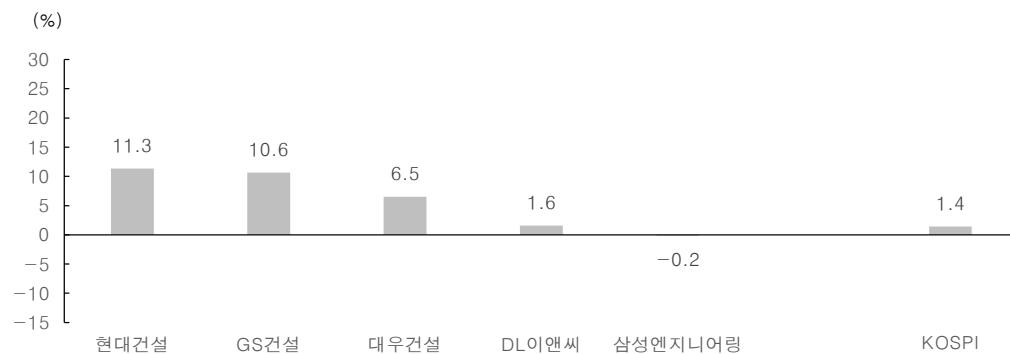
부정적 우려보다는 긍정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시기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부정적 이슈 우려보다는 대선 이후 업종 기대감과 더불어 투자포인트인 1) 주택 분양 확대 및 실적 기여 확대 2) 해외 수주 회복 및 추가 원가 이슈 안정화 3) 신사업의 점진적인 가시성 확대의 투자포인트가 보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업지수 기준, PBR 0.76x 수준(KOSPI 대비 할인율 31%)으로 최근 멀티플 상승 및 Gap 축소에도 Valuation 부담을 논하기엔 이른 시기로 판단한다. 업종 내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의 종목 선호도를 유지한다.

대선 모멘텀 부각, 주가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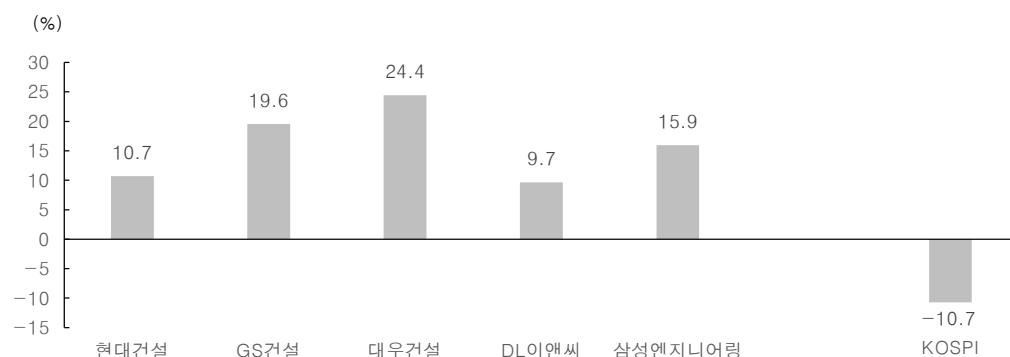
3월 9일 대선 이후에도 주요 건설/건자재 업종의 주가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커버리지 대형 5개사의 평균 주가 상승률(3월 16일 종가 기준)은 대선 직후 동기간 KOSPI 대비 4.6%p 아웃퍼폼했다. 광주 봉괴사고(1/11일)에 따른 업종 투자심리 악화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내 250만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교통 여건 개선, 세제 완화 등의 변화와 건설/건자재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언론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달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안 발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3/9 일) 후, 주요 건설업체 및 KOSPI 수익률 비교 [3월 16 일 종가 기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연초 대비 주요 건설업체 및 KOSPI 수익률 비교 [3월 16 일 종가 기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 분석 및 전망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윤석열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1월 23일,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목표를 기준 250만호에서 311만호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 발표(2월 2일, 임기 내 → 장기 목표로 수정)로 공급 계획 규모로는 윤석열 후보 대비 61만호 많은 수준 주택 분양물량 측면에서는 윤석열 후보(임기 내 250만호) 대비 주요 건설사의 주택 분양 물량 확보에는 보다 우호적 건설 섹터 내에서는 공공 주도의 물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사 대비 중견, 중소 건설사에 관련 수혜가 보다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관련 종목: 금호건설, 계룡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중심의 분양 확대 전략과 더불어 건설/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은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 및 적극적 참여 여부에 대한 스탠스는 변수 공공 임대주택, 공공이 토지를 소유, 주택 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 분양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인 공급 정책으로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 내 250만호(수도권 130만호) 주택 공급 목표,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 정책 → 민간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대형 주택사업자에게 유리 관련 종목: 현대건설, DL 이앤씨, GS 건설, 대우건설 등 민간분양주택 119만호, 민간임대주택 11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공분양주택 21만호,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 분양 후 매각 가능한 '원가주택'(30만호)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5년 이상 거주 시,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재개발·재건축 ·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단계의 재건축 단지 추진 속도를 지연시켰던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현행 50%) 비중 완화(전반적인 재건축 초기 단지의 추진 속도 개선 기대 → 30년 이상 단지 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용적률 상향(300% →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발표를 통한 재건축 사업 활성화 기대 수직증축, 세대 구분 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특별법'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 수익성 개선 → 관련 시장 내 건설사의 사업 및 수주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과도한 개발 이익에 대해 공공 환수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 → 사업성 악화에 따른 민간 주택사업 위축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단계의 재건축 단지 추진 속도를 지연시켰던 '안전진단' 평가에 준공 30년 이상 단지 면제 → 평가항목 단위의 완화 대비 재건축 속도 측면에서 보다 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 서울 역세권 민간 재건축지역 용적률 상향(300% → 500%) +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 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의 부담 완화 및 사업성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 활성화 기대 대형사 중심의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관련 종목: 현대건설, DL 이앤씨, GS 건설, 대우건설 등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적용 한시적 완화 통해 주택매매거래 활성화 기대 관련 종목: 한샘, LX 하우시스, 케이씨씨글라스 등 주택매매/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B2C 건자재 업체 수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국토보유세 신설,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등 세제 강화 목적이 포함. 세제 완화 측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후보 모두 현재 추진중인 GTX A~C 노선 연장 및 신규 노선(GTX D~F) 추진 등을 포함한 교통 여건 개선 공약 발표 이재명 후보: 지하철 연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개통,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 지하화, 수원 군공항 이전 등 윤석열 후보: 수도권 도심 철도,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신분당선 연장,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 등 건설 현장 착공물량 증가에 따른 토목/인프라 관련 건자재 업체 수혜 관련 종목: 쌍용 C&E,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삼표시멘트 등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건설업종의 Risk 요인 점검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 강화

이와는 반대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 강화 우려 2)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훼손 우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영향은 섹터의 부정적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연초 광주 붕괴사고 이후 1) 지난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외)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징역/벌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대상 사고는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법 시행에 대해 각 사의 상황은 유예기간 중 안전관리 강화, 인력 교육 등 사전적 준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대규모 비용 증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 경영 의지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입법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구분	내용
정의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발생 ③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 제외
처벌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위반 시 처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① 사망자 1명 이상 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②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위 ① 또는 ②의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	① 사망자 1명 이상 재해 발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②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 단,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법무법인(유) 지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대재해처벌법(22.01.27일)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요약

일자	현장명	관련 기업	현황
2022-01-29	양주 채석장	삼표산업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 작업 중에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
2022-02-08	판교 제2테크노밸리	요진건설산업	업무·연구시설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가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사망
2022-02-16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대건설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추락 사망
2022-02-21	동해 시멘트 공장	쌍용 C&E	시멘트 생산장비 설치 준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 추락 사망
2022-03-13	GTX-A 5공구	DL 이앤씨	DL 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지하로 전선을 내리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전선드럼에 맞아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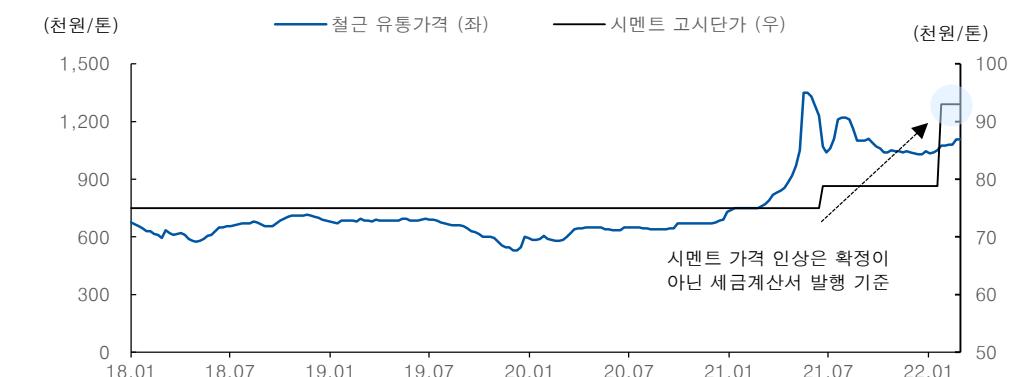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정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건설업종의 부정적 이슈 점검 – 2)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훼손 우려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건설 주요 자재인 철근, 시멘트 가격 상승은 각 사의 실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3월 중순, 철근(유통가 기준)과 시멘트 가격(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미확정)은 전년동기대비 약 40% 이상 상승했다. 전체 매출원가에서 1) 주요 원자재인 철근, 시멘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10~20%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총 매출원가의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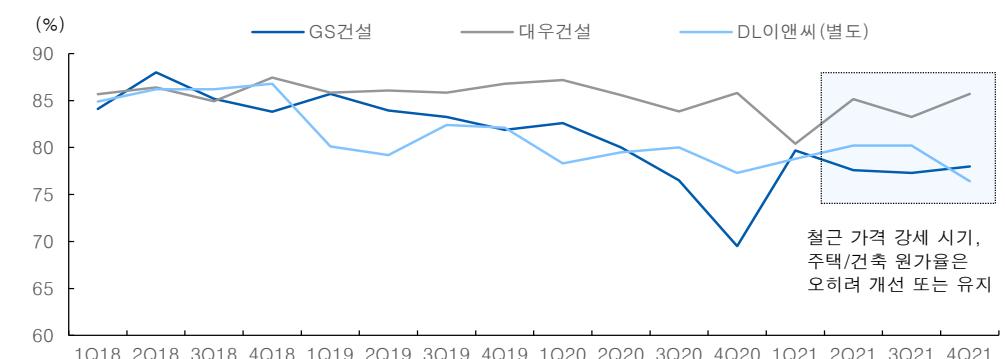
다만, 계약/발주처별 에스컬레이션 조항 적용과 V/O 등을 통한 원가 보상, 자재 계약방식별 원가 절감 등은 우려 대비 원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2021년 고점을 기록한 철근 가격과는 달리 주요 건설사의 주택/건축 원가율은 오히려 유지 또는 개선되는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건설 주요 자재가격 추이



자료: 스틸데일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건설사 주택/건축 부문 원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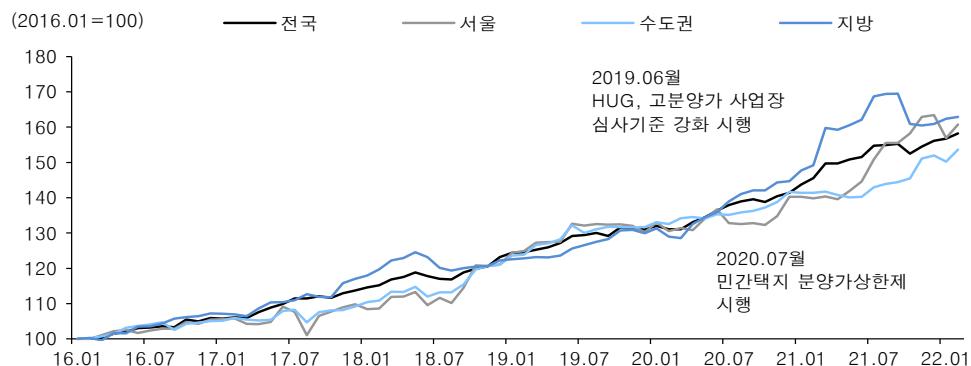


자료: 각 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택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신규 주택 현장의 분양가 인상 기조 역시 건설사의 원가 부담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표한 2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433.6만원/m²(과거 1년 평균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8.8% 상승했다.

2022년, 유안타증권 커버리지 건설 5개사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약 4.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가이던스 대비 큰 폭의 상회로 실적 기저부담이 존재하는 DL 이앤씨를 제외한 4개사 기준으로는 약 28% 수준이다. 유안타증권 기준, 기존 추정치에 총 매출원가의 1% 상승을 가정한다면 전년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6%(DL 이앤씨 제외 시 12%)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손익 개선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추정한다.

월별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추이 (최근 1년 평균 기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커버리지 합산 기준, 매출원가 1% 상승에 따른 이익 변화

(단위: 십억원)

	21	22E (기준 추정)	YoY	22E (매출원가 +1% 가정)	YoY
매출액					
- 5개사 합산	50,903	56,325	11%	56,325	11%
- 4개사 합산(DL 이앤씨 제외)	43,274	47,837	11%	47,837	11%
매출원가					
5개사 합산	44,269	48,870	10%	49,358	11%
4개사 합산(DL 이앤씨 제외)	38,026	41,827	10%	42,245	11%
매출총이익					
5개사 합산	6,634	7,455	12%	6,966	5%
4개사 합산(DL 이앤씨 제외)	5,248	6,010	15%	5,592	7%
판매관리비					
5개사 합산	3,036	3,152	4%	3,152	4%
4개사 합산(DL 이앤씨 제외)	2,606	2,631	1%	2,631	1%
영업이익					
5개사 합산	3,598	4,303	20%	3,815	6%
4개사 합산(DL 이앤씨 제외)	2,641	3,379	28%	2,96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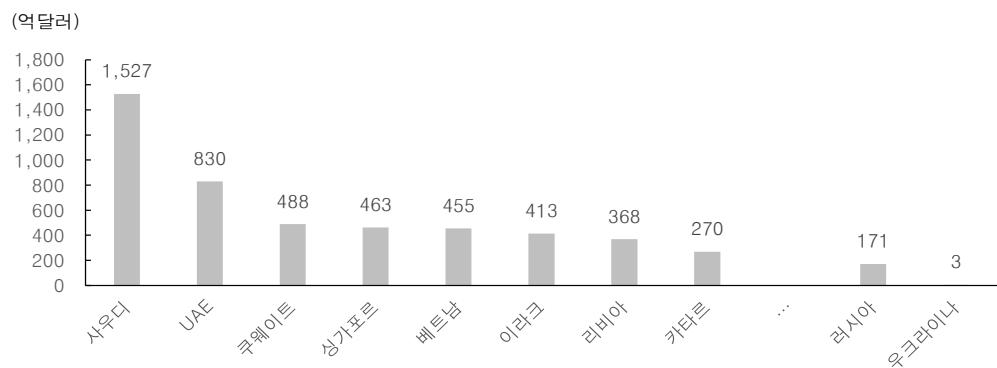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건설업종의 부정적 이슈 점검 – 3)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및 금융 제재 등의 가능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정적 요인이나, 단기적으로 실적과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역대 해외 수주 실적(1966년~)을 살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9%, 0.03% 수준으로 높지 않다. 2021년 말을 전후로 DL이앤씨(약 1.6조원), 삼성엔지니어링(약 1.3조원)가 각각 수주 성과를 기록한 러시아 플랜트 Project는 현재 본격적인 시공이 아닌, 초기 설계 단계로 단기적으로 매출 기여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별 해외 수주 실적 [1966년~, 총 9,050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커버리지 건설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주요 수주 Project

(단위: 억불)

국가	회사	Project	공사기간 [YYYY.MM]	공사금액 [억불]
러시아	현대엔지니어링	안티핀스키 석유화학설비 공사	2019.12~2024.12	30.0
러시아	DL 이앤씨	발틱가스캐미컬 콤플렉스 – PE/LAO 건설사업	2021.11~2025.01	13.2
러시아	DL 이앤씨	모스크바 정유공장 확장사업 EPCM	2021.03~2024.09	2.9
러시아	삼성엔지니어링	발틱 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 에탄크래커 패키지(EP)	2022.02~2024.11	11.4
러시아	현대건설(연결 기준)	내셔널 케미컬 산업 플랜트	2015.03~2020.04	28.9
러시아	현대엔지니어링	내셔널 케미컬 산업 플랜트	2015.03~2020.04	23.4
러시아	현대건설	타타르스탄 비료공장	1997.09~2000.05	3.6
러시아	현대엔지니어링	러시아 SPB 현대차공장 신축공사	2008.08~2010.05	2.4
러시아	현대엔지니어링	러시아 SPB 부품사 단지 신축공사	2009.08~2010.10	1.1
러시아	GS 건설	타타르스탄 정유공장(상압/감압 정제시설) 프로젝트	2005.08~2007.07	4.5
러시아	GS 건설	니즈니кам스크 정유 및 석유화학 콤플렉스 사업(스텝1)	2008.05~2011.04	4.0
러시아	DL 이앤씨	비쇼초크 액화 천연 가스 공장 (EPC)	2015.11~2018.07	3.1
러시아	대우건설	사할린 II LNG 플랜트 기전 설치공사	2004.09~2007.10	1.5
러시아	삼성물산	Lakhta Centre Project	2014.09~2018.12	2.4
우크라이나	대우건설	키예프 금융센터 건립공사	1998.03~2002.02	2.8

자료: 해외건설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건설업종 투자전략 : 부정적 우려보다는 긍정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시기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부정적 이슈의 우려보다는 대선 이후 업종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 1) 주택 분양 증가 및 실적 기여 확대 2) 해외 수주 회복 과 추가 원가 이슈 안정화 3) 신사업의 점진적인 가시성 확대의 건설업종 투자포인트가 보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업지수 기준, PBR 0.76x 수준(KOSPI 대비 할인율 31%)으로 최근 멀티플 상승 및 Gap 축소에도 Valuation 부담을 논하기엔 이른 시기로 판단한다. 업종 내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의 종목 선호도를 유지한다.

건설업지수, KOSPI PBR 및 KOSPI 대비 할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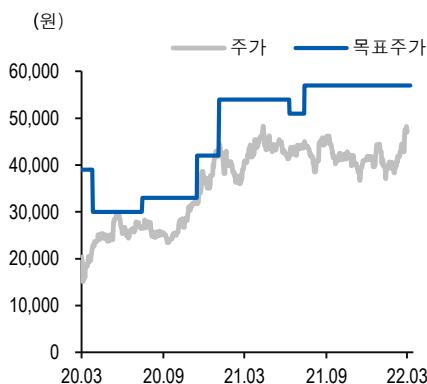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건설업종 Valuation Table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이앤씨	삼성 엔지니어링	GS 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JGC	Saipem	Fluor	TR
현재주가(현지통화)	49,200	7,180	130,500	26,550	47,350	16,600	1,527	1.0	27.8	7.9
시가총액(백만달러)	4,464	2,431	2,058	4,240	3,302	891	3,340	1,102	3,928	485
주가수익률 (%)	1D	1.7	1.1	0.8	0.9	2.5	-3.2	0.9	-0.8	2.4
	1M	17.0	28.4	12.5	13.7	20.6	8.1	37.0	-14.5	29.4
	3M	2.9	18.7	4.4	13.2	13.1	-31.3	55.0	-43.6	16.6
	6M	-12.5	0.6	-6.5	-2.4	2.6	-42.0	52.5	-50.6	74.9
P/E(배)	2019A	11.6	9.3	-	11.7	5.6	2.7	15.5	435.6	-
	2020A	34.1	7.2	-	10.3	9.6	7.2	53.2	-	430.0
	2021A	12.3	4.9	4.0	12.1	8.3	7.3	66.6	-	51.5
	2022E	11.3	5.5	4.4	12.3	7.3	3.5	-	-	21.8
	2023E	9.8	5.0	4.0	11.7	6.6	3.1	21.4	-	13.2
P/B(배)	2019A	0.7	0.8	-	2.9	0.6	0.5	0.9	1.1	4.2
	2020A	0.6	0.8	-	1.6	0.7	0.6	0.6	0.7	2.2
	2021A	0.7	-	-	2.2	-	-	0.8	-	4.1
	2022E	0.7	0.8	0.6	2.2	0.8	0.3	1.0	1.1	2.3
	2023E	0.7	0.7	0.5	1.9	0.7	0.3	1.0	1.3	2.1
ROE(%)	2019A	6.3	8.8	-	27.1	11.8	20.3	6.0	0.3	-70.4
	2020A	1.8	11.1	-	17.3	7.7	8.9	1.0	-32.7	-34.6
	2021A	5.8	-	-	20.7	-	-	1.3	-	3.7
	2022E	7.3	16.0	14.2	19.7	11.5	10.2	-10.7	-31.1	-103.6
	2023E	7.6	15.3	13.7	17.6	11.7	10.6	4.5	-9.6	20.5
EV/EBITDA (배)	2019A	4.9	7.4	-	6.5	4.2	1.2	8.7	4.4	9.1
	2020A	4.5	4.8	-	4.9	4.9	2.4	0.3	7.2	5.1
	2021A	4.5	-	-	5.8	-	-	4.9	-	-
	2022E	3.8	3.5	1.0	6.5	4.6	1.1	7.1	6.3	8.2
	2023E	2.9	2.9	0.7	5.9	4.0	0.81	6.7	4.2	3.2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주 : DL 이앤씨는 인적분할 이후 재상장 (21.01.25~)

GS 건설 (0063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2-03-17	BUY	57,000	1년		
2021-07-29	BUY	57,000	1년		
2021-06-25	BUY	51,000	1년	-14.52	-12.16
2021-01-18	BUY	54,000	1년	-21.64	-10.56
2020-11-30	BUY	42,000	1년	-10.81	2.26
2020-07-30	BUY	33,000	1년	-18.05	-0.30
2020-04-10	BUY	30,000	1년	-13.50	-0.67
2020-01-14	BUY	39,000	1년	-35.33	-2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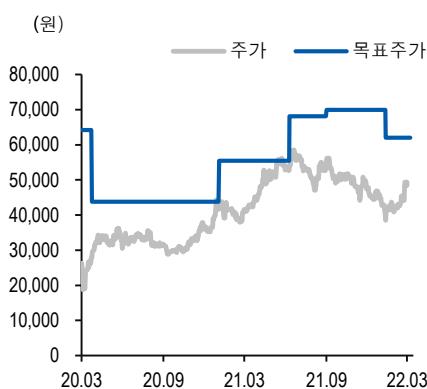
자료: 유안티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가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현대건설 (00072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2-03-17	BUY	62,000	1년		
2022-01-27	BUY	62,000	1년		
2021-06-25	BUY	68,108	1년	-25.92	-14.00
2021-01-18	BUY	55,459	1년	-16.48	1.40
2020-04-08	BUY	43,784	1년	-24.23	1.33
2019-07-26	BUY	64,216	1년	-39.70	-2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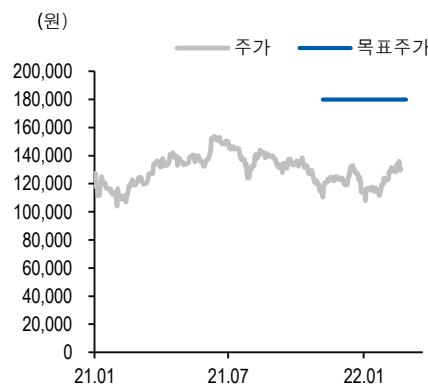
자료: 유안티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가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DL 이앤씨 (37550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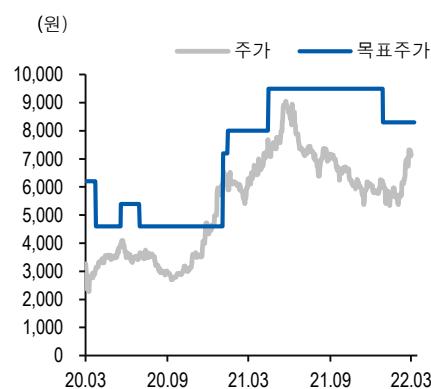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가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대우건설 (0470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가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김기룡)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